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대학생 자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 효과 중심으로

김한나*, 김혜련*†, 최윤신**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Parental Abuse, Parental Alcoholism, and Suicidal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on

Han-Na Kim*, Hae-Ryun Kim*†, Yun-Shin Choi**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Women's University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yupsu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is paper examines th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buse, parental alcoholism, and suicidal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s. **Methods:** A survey on abusive experience from parents, parental alcoholism,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was conducted with 415 students from six universities.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AMOS program. **Results:** The result demonstrates that depression has some mediation effects between parental abuse and suicidal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s. Meanwhile, depression has an entire mediation effect between parental alcoholism and suicidal ideation. **Conclusions:** This study shows that the parental alcoholism by itself did not affect suicidal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s, but depression did. Experience of parental abuse is a significant risk factor which may cause suicidal ideation, and depression may cause suicidal ideation indirectly. It calls for efforts to prevent parental abuse and emphasizes the necessity of paying primary attention to th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in preventing suicidal ideation.

Key words: Parental abuse, Parental alcoholism,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University students

I. 서론

최근에 우리나라는 자살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자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2010년 통계청(2010)에 의하면 15~24세의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상담원(2007)의 조사에서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반 이상인 58.8%(조사 대상자 4,700명 중 2,705명)가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11.1%(조사 대상자 4,593명 중 510명)가 실제 자

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Jee et al., 2007). 또한, 자살생각을 했던 청소년이 자살생각을 하지 않았던 청소년에 비해 성인이 된 이후에 자살 시도를 12배 이상 하였다(Reinherz, Tanner, Berger, Beardslee, & Fitzmaurice, 2006)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자살생각은 치명적인 자살 완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낮은 단계로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생각을 가지고는 있으나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를 지칭한다(Maris, Berman, & Silverman, 2000). 즉,

교신저자: 김혜련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화: 02-970-5535 Fax: 02-970-5965 E-mail: haeryun@swu.ac.kr

* 본 연구는 2011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 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투고일: 2011.11.21

▪ 수정일: 2011.12.22

▪ 게재확정일: 2011.12.27

자살생각은 삶을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수준에서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심지어는 망상적인 집착을 보이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Goldney, Winefield, Tiggemann, Winefield, & Smith, 1989; Kim & Kim, 2008). 자살생각은 단순히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자살 시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살 시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Simons & Murphy, 1985; Brent et al., 1986; Lim, 2003; Park, 2007).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살생각은 자살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자살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연령에서 발생하지만, 사춘기 이후부터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ller & Glinski, 2000).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Woo, 1998),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기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대학생 집단은 중·고등학교 생들에 비하여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 수위가 더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살 연구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에 반해 (Jung, An & Kim, 2003; Jung & Jung, 2007; Park, 2009; Park, 2010; Woo & Kim, 2011),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소수이다 (Kim, 2009). 우리나라 대학생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고 (Kim, 2009), 자살생각을 하고 자살 계획을 세우며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라고 보고한 연구 결과 (Kessler, Borges, & Walters, 1999)를 고려해 볼 때, 대학생의 자살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그동안 연구 대상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대학생을 포함하여 청소년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은 가족이다 (Lee, Wong, Chow, & McBride-Chang, 2006; Kim, Jung, & Lee, 2008). 가족은 청소년기의 대학생에게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심리사회적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에서 가정환경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부모의 알코올 문제는 자녀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Adams, Overholser, & Spirito, 1994; Yang & Clum, 1996; Nilsen & Conner, 2003; Park, 2005; Park, 2010).

연구자들은 가정폭력이 자녀들에게 심리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Gould, Greenberg, Velting & Shaffer, 2003; Sohn, 2005; Kim, Cho & Cho, 2007). 특히, 18세 이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경험은 자녀의 자살생각을 높이는 위험 요인 (Nilsen & Conner, 2003)이라고 보았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ndin, Chorot, Santed, Valiente, & Joiner, 1998; Berenson, Wiemann, & McCombs, 2001; Perkins & Jones, 200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청소년이 자살생각을 하게 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 Heo, 2003; Park, 2005; Seo, 2006; Park, 2007; Kim, Jung, & Lee, 2008; Hong, 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중 하나인 부모의 알코올 중독 문제 또한 청소년 자녀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했다 (Adams, Overholser, & Spirito, 1994).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의 청소년 자녀가 일반 가정의 청소년 자녀들에 비하여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ylant, Ide, Cuevas, & Meehan, 2002). 이는 부모의 알코올 중독 문제 또한 자녀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부모의 알코올 중독은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부모의 알코올 중독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 요인 중에서도 그동안 관심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부모의 알코올 중독 문제를 동시에 다루면서, 이 두 요인이 대학생 자녀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과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청소년들이 자살생각을 하는 데에 있어 또 다른 제3의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즉,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부모의 알코올 중독 문제가 대학생 자녀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데에서 간접적으로 거쳐 갈 수 있는 매개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그 매개 요인으로 본 연구자는 우울에 주목하였다.

우울은 개인의 심리적 변인 중에서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Moscicki, 1997; Lee, 2002; Park & Kim, 2004; Park, 2007; Park, 2009), 대학생을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자살생각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심리적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Shin et al., 1990; Oh, 2006; Park, 2007). 국내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에서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우울은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검증되었으며(Kim & Kim, 2008), 특히 십대와 초기 성인기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Nemeroff, Compton & Berger, 2001). 따라서 우울은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예측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우울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하였거나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에게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심리적 문제 중 하나다. 다시 말하면, 우울은 가정폭력과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에 그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다(Stanley & Vanitha, 2008; Kim, Soung, & Han, 2010). 가정에서의 학대 경험과 자녀의 우울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에서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이 일반 가정의 자녀들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한다는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Kernic et al., 2003; Kim, Cho, & Cho, 2007; Yoon & Nam, 2007; Nam, 2008; Sohn, 2009). 그리고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녀들을 비교하였을 때,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자녀들에게서 우울이 더 많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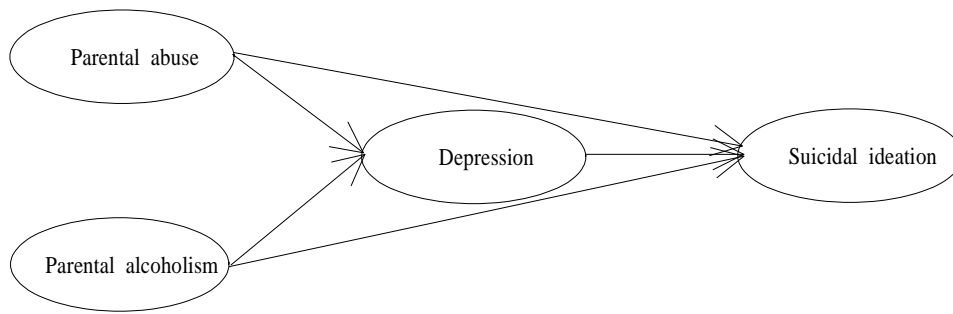
고되고 있다(Bush, Ballard, & Fremouw, 1995; Harter, 2000; Klostermann et al.,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부모의 알코올 중독은 자녀의 우울과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우울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우울은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부모의 알코올 중독 문제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부모의 알코올 중독은 자녀의 우울을 통하여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인 우울이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자녀의 자살생각, 그리고 부모의 알코올 중독과 자녀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선행 연구 결과를 기초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대학생 자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의 우울은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 매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대학생 자녀의 우울이 (1)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자녀의 자살생각 사이에서, 그리고 (2) 부모의 알코올 중독과 자녀의 자살생각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Figure 1].



[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415명이다. 조사는 서울 소재 대학 3곳, 경기도 소재 대학 2곳, 충청도 소재 대학 1곳에서 이루어졌으며, 대학교 선정은 임의 표집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자기 기입식 응답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의 높은 회수율을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해당 대학교에 방문하여 수업시간에 양해를 구하고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설문지 작성 전에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고, 본 연구 참여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연구의 동참 여부에 대해서 구두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설문지 배부와 회수는 2011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총 430부가 수거되었으나,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잔차값이 높은 설문지 15부를 제외하여 415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3. 변수 및 측정방법

1)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Park(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 학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Briere(1988)의 신체적 심리적 학대에 관한 질문을 기반으로 하여 Park(1999)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이다. 본 도구는 신체적 학대 8문항, 심리적 학대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세 이전에 신체적 심리적 학대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를 어머니와 아버지로 구분하여 따로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Park(1999)의 연구에서 0.90, 본 연구에서는 0.86의 신뢰도를 보고하였다.

2) 부모의 알코올 중독

부모의 알코올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판 알코올 중독자 자녀 선별 검사도구(Korean version of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Jones(1983)가 개발한 CAST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를 Kim, Jang과 Kim(1995)이 번역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로, 부모의 음주와 연관된 개인의 행동, 경험, 감정 등을 사정하기 위해 개발한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 6점 이상의 대상자를 부모가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Kim 등(1995)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94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94였다.

3) 우울

대학생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Radloff(1977)의 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Shin 등(1991)이 번안하여 한국형으로 표준화시킨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증의 증상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 등(1991)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0.89이었고, Jung(2001)의 연구에서는 0.8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91이었다.

4) 자살생각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Beck, Kovacs와 Weissman이 개발한 자살생각척도(SSI)를 Park과 Shin(199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SI는 원래 임상 면접을 통하여 임상가가 평정하는 3점 척도로 된 19문항으로 이루어

진 검사이나 많은 피실험자를 일일이 면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Park과 Shin(1990)이 가능한 원래의 문항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변형하였다. 본 척도는 Cha와 Kang(2010)의 연구에서 활용되면서 문항 6번과 15번은 원래 의도했던 요인에 수렴되지 않아 공분산구조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ha 등(2010)의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90이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대학생 자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우울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고, 이를 위하여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우울의 매개 효과 검증은 요인별 경로계수 및 모형적합도 분석에 기초하였다. 모형의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기술통계 및 정규성 확인과 다중공선성 검증은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는 여학생이 73.9%(306명), 남학생이 26.1%(108명)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의 비율보다 더 많았다.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대상자가 36.0%(149명)이었고, 1학년이 23.2%(96명), 3학년이 22.5%(93명)로 1, 3학년 학생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0.7세였다. 조사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주관적 경제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대학생 중에서 44.3%(183명)는 주관적 경제 상태를 ‘중’이라고 응답하였고, 29.5%(122명)는 ‘중하’라고 응답하였다. 전공 분포를 살펴보면, 사회복지학 전공이 65.8%(265명), 인문사회학 전공이 7.2%(29명), 기타 15.1%(61명)로 사회복지학 전공의 비율이 다른 전공에 비하여 높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participants

		(N=415)	
	Category	n	%
Gender (n=414)	Male	108	26.1
	Female	306	73.9
School year (n=414)	Freshman	96	23.2
	Sophomore	149	36.0
	Junior	93	22.5
	Senior	76	18.4
Perceived economic status (n=413)	Low	22	5.3
	Middle-low	122	29.5
	Middle	183	44.3
	Middle-high	80	19.4
Type of Major (n=415)	High	6	1.5
	Social welfare	265	65.6
	Human studies	29	7.2
	Business administration	6	1.5

Category	n	%
Art and physical major	19	4.7
Free major	24	5.9
Other	61	15.1

2. 연구 모형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 결과

우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데에 수집된 자료가 구조방정식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자료의 정규 분포성과 독립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2>.

West 등(1995)은 유의 수준 0.01의 수준에서 절댓값을 기준으로 외도의 값이 2보다 크고, 첨도의 값이 7보다 큰 경

우 정규성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West, Finch, & Curran, 1995; as cited in Moon, 2010)하는데,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외도, 첨도 값은 그 기준을 충족하였다. 한편, 다중공선성의 경우 공차한계(Tolerance Limit)가 0.19 이하이고 분산팽창요인(VIF) 값이 5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의심(Jung & Ahn, 2009)하는데, 본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본 모형의 측정 변인들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Table 2> Main variables characteristics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ean	S.E	Skewness	Kurtosis	Multicollinearity	
								Tolerance	VIF
Suicidal ideation	Suicidal ideation1	0.0	6.0	1.07	1.43	1.25	0.692		
	Suicidal ideation2	0.0	7.0	1.41	1.46	1.34	1.863		
	Suicidal ideation3	0.0	9.0	2.39	2.54	0.68	-0.786		
	Suicidal ideation4	0.0	8.0	0.90	1.50	1.90	3.447		
Depression	Depressed affect	0.0	19.0	4.80	4.05	1.06	0.873	0.33	2.994
	Positive affect	0.0	12.0	2.90	2.61	1.26	1.749	0.27	3.709
	Somatic and retarded activity	0.0	16.0	5.05	3.75	0.91	0.504	0.28	3.485
	Interpersonal	0.0	6.0	1.66	1.41	0.73	0.184	0.53	1.881
Parental abuse	Abuse by mother	0.0	62.0	9.22	10.50	1.64	3.725	0.58	1.706
	Abuse by father	0.0	55.0	8.34	10.70	1.92	3.661	0.60	1.641
Parental alcoholism		0.0	1.0	0.28	0.45	0.95	-1.09	0.86	1.163

3. 측정모형 검증

측정 변인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론적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이

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134.197(df = 32), p = 0.000$, NNFI=0.939(0.9 이상)²⁾, CFI=0.957(0.95 이상), RMSEA=0.088(0.1 이하), SRMR=0.0405(1.0 이하)였다. 표본 크기에 민감한 χ^2 값을 제외하고는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그 기준

을 상회하여,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고, 잠재 변수에 대한 모든 측정 변인이 모두 $p < 0.001$ 의 수준에서 유의하여, 잠재 변수의 개념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Measured variables: path coefficients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B(\beta)$	S.E.	C.R.
Parental abuse	→	Abuse by mother	1.000(0.896)		
		Abuse by father	0.700(0.616)	0.106	6.624***
Depression	→	Depressed affect	1.000(0.851)		
		Positive affect	0.680(0.899)	0.029	23.574***
		Somatic and retarded activity	0.957(0.881)	0.042	22.901***
		Interpersonal	0.280(0.682)	0.018	15.579***
Suicidal ideation	→	Suicidal ideation1	1.000(0.815)		
		Suicidal ideation2	0.958(0.764)	0.057	16.695***
		Suicidal ideation3	1.757(0.810)	0.098	17.929***
		Suicidal ideation4	1.049(0.815)	0.058	18.051***

$\chi^2 = 134.197(df = 32), P = 0.000$, NNFI=0.939, CFI=0.957, RMSEA=0.088, SRMR=0.0405

*** $p < 0.001$

4. 우울의 매개 효과 검증

우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설정한 구조모형 검증을 위해 적합도 지수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hi^2 = 148.894(df = 39), p < 0.001$, NNFI=0.936(0.9 이상), CFI=0.954(0.95 이상), RMSEA=0.083(0.1 이하), SRMR=0.0405(1.0 이하)로 표본 크기에 민감한 χ^2 값을 제외하고,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그 기준을 상회하여,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첫째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대학생 자녀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우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대학생 자녀의 자살생각($\beta = 0.276, C.R. = 4.470, p < 0.001$)과 우울

($\beta = 0.330, C.R. = 4.947, p < 0.001$)을 증가시키고, 우울이 증가하면 자살생각($\beta = 0.495, C.R. = 8.281, p < 0.001$)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우울을 통하여 대학생 자녀의 자살생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우울은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대학생 자살생각 사이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Park(2007)과 Cho와 Lee(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둘째, 부모의 알코올 중독은 대학생 자녀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학생 자녀의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대학생 자녀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beta = -0.004, C.R. = -0.078$),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beta = 0.163, C.R. = 3.034, p < 0.001$), 우울이 다시 자살생각($\beta = 0.495, C.R. = 8.281,$

2) 괄호 안의 숫자는 각 적합도 지수의 기준 값임.

p<0.001)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생 자녀의 우울이 부모의 알코올 중독과 자살생각 사이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Kim과 Yoon(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우울의 β 값을 비교하여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부모로부터의 학대($\beta=0.276$)보다는 우울($\beta=0.495$)이 자살생각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Mediation effect

			<i>B</i> (β)	S.E.	C.R.
Depression	←	Parental alcoholism	0.349(0.163)	0.115	3.034***
		Parental abuse	0.044(0.330)	0.009	4.947***
Suicidal ideation	←	Parental alcoholism	-0.010(-0.004)	0.124	-0.078
		Parental abuse	0.045(0.276)	0.010	4.470***
		Depression	0.602(0.495)	0.073	8.281***

$\chi^2 = 148.894(df = 39), P = 0.000, NNFI=0.936, CFI=0.954, RMSEA=0.083, SRMR=0.0405$

*** p<0.001

5. 우울의 간접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 그리고 부모의 알코올 중독과 자살생각 사이에서 우울의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AMOS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여 유의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가설 1에 해당하는 가정 내 학대 경험과 자녀

의 자살사고 사이에서 우울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의 추정계수는 0.027($\beta = 0.163, p = 0.002$)이었고, 가설 2에 해당하는 부모의 알코올 중독과 자살생각 사이에서 우울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 추정계수는 0.210($\beta = 0.081, p = 0.003$)으로, 모든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우울의 매개 효과를 가정한 가설이 모두 지지되었다.

<Table 5> Effects decomposition table about mediation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i>B</i> (β)	p	<i>B</i> (β)	p	<i>B</i> (β)	p	
Depression	←	Parental alcoholism	0.349(0.163)	0.004		0.349(0.163)	0.004	
		Parental abuse	0.044(0.330)	0.002		0.044(0.330)	0.002	
Suicidal ideation	←	Parental alcoholism	-0.010(-0.004)	0.942	0.210(0.081)	0.003	0.200(0.077)	0.260
		Parental abuse	0.045(0.276)	0.003	0.027(0.163)	0.002	0.071(0.439)	0.002
		Depression	0.602(0.495)	0.001			0.602(0.495)	0.001

IV. 논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살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사람에게까지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면서, 보건학을 비롯하여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Park & Kim, 2004; Cheo, 2004).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 시도, 자살 완결로 이어지는 경로를 가지는 바, 자살의 첫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는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는 자살 완결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여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지만, 현재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생각에 초점을 두고,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부모의 알코올 중독, 대학생 자녀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우울은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수이며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부모의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초래되는 결과라는 점을 인식하여,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 우울이 그 관계를 매개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대학생 자녀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우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이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자살생각 사이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알코올 중독은 대학생 자녀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우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자녀의 우울은 부모의 알코올 중독과 자살생각 사이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가정환경 특성에 따라서 자살생각에 대한 개입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대학생 자녀의 우울은 부모의 알코올 중독과 자살생각 사이에서 완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자녀의 경우에는 우울에 대한 개입만으로 자살생각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우울에 대한 개입만

으로 자살생각을 예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대학생 자녀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경우,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대학생 자녀의 우울에 대한 개입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 없다. DSM-IV의 우울증 진단 기준에 자살생각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Shim & Kim, 2005)로 우울과 자살생각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우울에 대한 개입은 자살생각을 예방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학 내의 학생생활연구소 등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울을 예방하는 개입 프로그램의 하나로, 대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를 잘 설정하고 삶에 대한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Woo와 Jang(2006)은 대학생들을 포함하여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살 충동 및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삶에 대한 목표나 삶에 대한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을 때에 자살 충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 내의 학생생활연구소 등에서 학생들을 상담할 때 우울 등의 기본적인 정신건강 상태 이외에도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거나 학생들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리닝 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이 있고 나아가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가 동반된 대학생의 경우 자살생각에 대한 고위험 집단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속히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에서도 대학생 자살률이 높아져 가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Kim, 2008). 예를 들어 존스홉킨스 대학에서는 자살 예방 추적 프로그램(Suicide Tracking System)을 도입하여 자살 위험 학생을 선별, 개입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 구성원 전체

가 자살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지하면서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Jang, 2009). 이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도 학내 대학생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학생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대학교 구성원들이 대학생 자살에 대하여 민감성을 가지고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을 인지하여 적절한 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자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살 위험이 높은 학생을 구별해내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gatekeeper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대학교 차원에서 대학생의 자살생각 혹은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식적인 실천이나 정책이 거의 없다. 현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생활연구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만을 강조하고 있는 정도다. 본 연구에서 입증되었듯이, 대학생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정환경에 대한 개입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살 예방정책에서도 가정환경에 대한 개입으로 부모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교육 내용에서 가정폭력이나 알코올 중독을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2011년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명시되어 있는 자살 예방 사업을 살펴보면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개입은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부모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우울과 자살생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녀들에 대한 개입 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 예방 정책이 조속히 수립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는 개인적 요인인 우울과 가정환경 요인인 부모로부터의 폭력 등을 다루는 증거 기반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로 대학생 자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대학생 자살 연구는 청소년과 노인 자살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Kim, 2009).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학생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 또는 심리적 변수에 주력한 경향이 있다(Ha & An, 2008; Yeo & Baek, 2010).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환경적 요인 중에서 그동안 간과하여 왔던 가족 환경, 즉 부모로부터의 학대 그리고 부모의 알코올 중독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의 표집 방법이 임의 표집으로 샘플이 다양하게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의 비중이 65.6%로 상당히 높았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비도 1대 3으로 맞지 않아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전공과 성비를 고려한 표집방법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만 측정하였다. 성적 학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적 학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이 본 연구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성적 학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대학생에게 있어서 가정환경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대학생 자살생각 예방을 위해서 가정환경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특히, 부모의 알코올 중독은 대학생 자녀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대학생 자녀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생 자살생각의 예방을 위해서 부모의 폭력 유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대학생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관련된 가정환경 이슈를 민감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부모의 알코올 중독은 대학생 자녀의 자살생각에 우울을 매개로 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자살생각 예방에서 우울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생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임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살에 대한 개입은 중·고등학교 청소년과 노인만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차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 예방 정책이 수립되어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는 증거 기반의 자살 예방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Adams, D. M., Overholser, J. C., & Spirito, A. (1994). Stressful life event associated with adolescent suicide attempts.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9, 43-48.
- Berenson, A. B., Wiemann, C. M., & McCombs, S. (2001). Exposure to violence and associated health-risk behaviors among adolescent girls.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5, 1238-1242.
- Brent, D., Kalas, R., Edelbrock, C., Costello, A. J., Dulcan, M. K., & Conover, N. (1986). Psychopathology and its relationship to suicidal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5, 666-673.
- Bush, S., Ballard, M., & Fremouw, W. (1995). Attributional style, depressive features, and self-esteem: adult children of alcoholic and non-alcoholics par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177-185.
- Cha, M. Y., & Kang, S. H. (2010). The effect of life event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n high school students' suicidal ide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8, 93-122.
- Cheo, W. K. (2004). A study on the socio-structural cause of youth suicide, *Social Welfare Policy*, 18, 5-30.
- Cho, Y. S., & Lee, K. L. (2010). Effects of adolescent's alienation, depression,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maladjustment on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 27-37.
- Goldney, R. D., Winefield, A. H., Tiggemann, M., Winefield, H. R., & Smith, S. (1989). Suicidal ideation in a young adult populatio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79, 481-489.
- Gould, M. S., Greenberg, T., Velting, D. M., & Shaffer, D. (2003). Youth suicide risk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a review of the past 10 yea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2, 386-405.
- Ha, J. H., & An, S. H. (2008). The verification of a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of suicidal ideation to stress, coping styles, perfectionism, depression, and impulsiv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Treatment*, 20, 1149-1171.
- Harter, S. L. (2000).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 review of the recent empirical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 311-337.
- Hong, N. M. (2011). *The effects of parental abuse and peer victimization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the mediating pathway of interpersonal needs and hopelessness*. Ewha Women University.
- Jang, CH. M. (2009). Suicide-related factors for college students and strategies for suicidal preventio. *Journal of Student Guidance*, 22, 69-71.
- Jee, S. H., Gu, B. Y., Bae, J. M., Jung, I. J., Lee, S. Y., Kim, Y. Y., ... Heo, J. S. (2007). *The study of suicide prevention system*. Korea of Youth Counseling institute.
- Jung, E. J., & Ahn, J. S.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ant leadership and job satisfaction at the community welfare centers in the area of seoul: mediating effect of internal service quality.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11, 339-369.
- Jung, H. K., Ahn, O. H., & Kim, K. H. (2003). Predicting factors on youth suicide impuls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 107-126.
- Jung, Y. J., & Jung, Y. S. (2007).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cognitive deconstruction, perceived support from friend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20, 67-88.
- Jung, Y. N. (2001).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developed by applying reality therapy on the body image and depression of adolescent women.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7, 342-358.
- Kernic, M. A., Wolf, M. E., Holt, V. L., McKnight, B., Huebner, C. E., & Rivara, F. P. (2003). Behavioral problems among children whose mothers are abused by an intimate partner. *Child Abuse & Neglect*, 27, 1231-1246.
- Kessler, R. C., Borges, G., & Walters, E. E. (1999). Prevalence of and risk factors for lifetime suicide attempt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6, 617-626.
- Kim, H. S., & Kim, B. S. (2008). A comparative study on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and the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8, 325-343.
- Kim, J. S. (2009). An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university student's suicidal ideation: regarding effect of suicidal attempt experience, mental health, psychosocial problems. *Mental Health & Social Work*, 32, 413-436.

- Kim, J. S., & Yoon, M. S. (2008). A study on the effects of suicidal ideation among rural middle school students. *Social Science Research, 24*, 77-102.
- Kim, J. Y., Cho, J. Y., & Cho, C. B. (2007). The effect of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on internet addi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Family and Culture, 19*, 61-90.
- Kim, J. Y., Song, A. A., & Han, S. (2010). An overlapping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children's depression and delinquent behavi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 1-26.
- Kim, M. R., Jang, H. I., & Kim, K. B. (1995). 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K.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127*, 1182-1193.
- Klostermann, K., Chen, R., Kelley, M. L., Schroeder, V. M., Braitman, A. L., & Mignone, T. (2011). Coping behavior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Substance Use and Misuse, 46*, 1162-1168.
- Lee, E. S. (2002).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adolescents' alienatio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Kyung Hee University.
- Lee, J. Y., & Heo, J. H. (2003). Family risk factors for child suicidal ideation.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1*, 85-95.
- Lee, T. Y., Wong, B. P., Chow, B. W.-Y., & McBride-Chang, C. (2006). Predictors of suicide ideation and depression in Hong Kong adolescents: perception of academic and family climate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6*, 82-96.
- Lim, I. S. (2003). *Middle school students' life stress and ways of coping on their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Maris, R. W., Berman, A., & Silverman, M. M. (2000). *Comprehensive text book of suicidology*. New York: Guilford Press.
- Miller, A. L., & Glinski, J. (2000). Youth suicidal behavior: assessment and interven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 1-22.
- Moon, S. B. (2010).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akjisa.
- Moscicki, E. K. (1997). Identification of suicide risk factors using epidemiologic studies.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0*, 499-517.
- Mylant, M., Ide, B., Cuevas, E., & Meehan, M. (2002). Adolescent children of alcoholics: vulnerable or resilient?.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iatric Nurses Association, 8*, 57-64.
- Nam, Y. Y. (2008). The moderating effects of protective factors over the impacts of family violence experience of adolescents on mental health.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5*, 199-218.
- Nemeroff C. B., Compton M. T., & Berger, J. (2001). The depressed suicidal patient: assessment and treatment.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932*, 1-23.
- Nilsen, W., & Conner, K. R. (2003). The associ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childhood and adult victimization.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1*, 49-62.
- Oh, H. A. (2006).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on the suicide ideation*. Chungang University.
- Park, B. K. (2007).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focus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s mediators.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6*, 505-522.
- Park, B. K. (2009).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al path of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31*, 207-235.
- Park, E. M. (1999). *Effects of childhood abuse and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on early adulthood intimate relationship quality*. Yonsei University.
- Park, J. Y. (2010). The differences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 and high school student where child abuse have effects on adolescent suicid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8*, 61-92.
- Park, K. (2005). The mediating effect of problem solving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and suicidal ideation in female adolescent. *Women and Health, 18*, 1-22.
- Park, K & Kim, H. E. (2004). The mediating effect of problem solving and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and suicidal ideation in female adolescent. *Journal of Women's Studies, 18*, 1-14.
- Park, K. B., & Shin, M. S. (1990). College goal and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 298-314.
- Perkins, D. F., & Jones, K. R. (2004).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8*, 547-563.
- Reinherz, H. Z., Tanner, J. L., Berger, S. R., Beardslee, W. R., & Fitzmaurice, G. M. (2006).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s predictive of psychopathology, suicidal behavior, and compromised functioning at Age 30.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3*, 1226-1232.
- Sandin, B., Chorot, P., Santed, M. A., Valiente, R. M., & Joiner, T. E. (1998). Negative life events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a critical analysis from the stress process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ce, 21*, 415-426.
- Seo, H. S. (2006).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on adolescent's suicide thinking*. Daegu University.
- Shim, M. Y., & Kim, K. H. (2005).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s of Korean adolescents: moderating effect of sex and developmental period.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0*, 313-325.
- Shin, S. C., Moun, S. J., Lee, M. J., Youn, K. S., Lee, H. Y., Kim, M. K., ... Kim, J. H. (1991).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 Its use in Korea

- standardization and factor structure of CES-D.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0, 752-767.
- Simons, R. L., & Murphy, P. I. (1985). Sex differences in the causes adolescent suicide ide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 14, 423-434.
- Sohn, B. D. (2009). A study on the multi-dimensional variables influencing adolescents'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13, 481-610.
- Stanley, S., & Vanitha, C. (2008). Psychosocial correlates in adolescent children of alcoholics: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12, 67-80.
- Statistics Korea. (2010). 2009 Youth Statistics.
- Woo, C. Y., & Kim, P. H. (2011). The multidimensional structure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 219-240.
- Woo, S. Y. (1998). *The study on the variables of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Seoul Women University.
- Yang, B., & Clum, G. A. (1996). Effects of early negative life experiences on cognitive functioning and risk for suicide: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16, 177-196.
- Yeo, H. H., & Baek, Y. M. (2010). The effect of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on suicide-related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 1047-1066.
- Yoon, H. M., & Nam, Y. O. (2007).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risk-taking behaviors: the mediating pathways of psycho-emotional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3, 127-153.